

부활 제 5 주일:

2017 년 5 월 14 일 (가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6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34)	봉 헌 (216)	성 체 (500)	파 견 (134)
<p>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p> <p>1 구역 : 장 글라라(구역장), 유 마리아,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신 엘리자베스.</p> <p>2 구역: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헬레나,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장 올리안나, 김클라라,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릃다, 김 유스티노, 김 요아킴, 고 안나.</p> <p>"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시요, 원형이십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황 베네딕토 16 세</p>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14/17	유 요한	김 헬레나	이 요한
5/21/17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이 요한
5/28/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이 요한
6/4/1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이 요한
6/11/17	유 요한	김 유스티나	이 요한

영어독서: Stephanie Limon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5/7/17	\$236	\$78	\$1,100

성당 청소 봉사자 스케줄 (5/6/17 이후 봉사자와 문의사항은 이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날짜	봉사자	날짜	봉사자
4/8/17	김 마르타, 신 이윤	5/13/17	손 아놀드, 손 쟈마
4/15/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5/20/17	이 글라라, 전 제노베파
4/22/17	배 시몬, 김 안드레아	5/27/17	배 안젤로, 배 실비아
4/29/17	오 베드로, 오 루시아	6/3/17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5/6/17	이 바실리오, 최 마태오	6/10/17	정 바오로, 정 린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봄 하마йка: 6월 4일

금년에는 우리 한인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봉사 와 협조를 있기를 기대 합니다.

한인 공동체 성모의 밤 행사: 5/22, 오후 6시 미사후

금년도 성모의 밤 행사를 5월 22일 오후 6시 미사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금년에도 각자 봉헌하실 꽃을 정성되어 준비 하셔서, 각자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모님께 바치는 글, 또한, 각자 정성되어 준비하셔서, 각 구역별로 낭송 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협 임원회의: 5/15 (월) 오후 8시

5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원래 예정일인 5월 14일(주일)이 어머니날인 관계로 5월 15일(월), 오후 8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6/1/17, 오후: 6시 30분

지난 5월 4일 성체조배에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성시간동안에 함께 기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월 1일에 있습니다.

봉헌금 작성시 변경사항

주일 봉헌금을 수표로 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를 "San Clemente Mission" 하셔야, 은행에 입금이 됩니다. 양지하시고, 수표 작성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공지내용

주일미사 주보에 공지 사항이 있으신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까지, 다음 주소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박 니콜라스, youngwpark@sbcglobal.net or 카톡, 멧세지 는 661-703-595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세진아, 성당은 신부님 보고 가는게 아니야

정 세진 아네스/ KBS 아나운서

천주교와의 인연은 유치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성모유치원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고, 이후 초등학교 때는 또 어쩌다 혼자 성당에 다니며 세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도 우연히 가톨릭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선생님인 학교, 제게 냉담 중이라며 특별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강요가 없었던 학창시절로 기억됩니다.

그러다 방송국에 입사하고, 마음고생이란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주변에서 종교에 의지하는 선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개척교회에 발을 들여놓게됐죠. 작은 교회인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는 목사님이 계셨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셨고, 두손 꼭 붙잡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지할 데가 생겨서인지 다니다 보니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어느 순간 목사님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냉담을 하게 되었고, 저는 종교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고 저만의 고립된 생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생활이 길어지던 중,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게 유일하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목사님에게 착지되지되는 교회가 싫다고. 깊이 없는 비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제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진아, 교회는 목사님 보고 가는 거 아니야. 하느님 보고 가는 거지~" 한때 성당에 다니면서 너무 형식적이다, 마음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무미 건조하게 성당을 다녀도 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니다.

이후, 신앙심이 깊은 가족과 결혼의 인연을 맺고 여러 성당을 다닐 기회가 생겼는데, 강론을 쪽 읽어 내려가지만 하는 신부님, 연세 있는 어르신들을 거의 꾸짖듯 강론하는 젊은 신부님을 비롯해 봉사자들이 설 수 있도록 기타를 연주하며 전례 진행을 직접 하는 신부님, 어린아이들을 성당 맨 뒤 구석진 좁은 방에 두지 말고 분위기 산만해져도 함께 나와 앉아서 미사를 보게 하자는 신부님 등 여러 신부님을 보면서 다시 예전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이죠. '신부님 보고 성당 가는 거 아니야 세진아, 하느님 보러 가는 거지~' 오늘도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많은 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 귀 기울이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해 봅시다.

서울 주보에서

성경의 동,식물

하느님의 재앙으로 쓰인 모기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때 모기가 나온다. "지팡이를 뺏어 땅에 먼지를 쳐서... 모기로 변하게"(탈출 8,12 참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자 먼지가 모두 모기가 되었다."(탈출 8,13 참조) 한편 "주님들은 모기때처럼 죽어 가리라"(이사 51,6)는 말씀은 땅에 사는 사람의 목숨을 하루살이 목숨 같지만 하느님의 구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것을 강조하기위한 비유이다.

- 카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발행-